국제 농업 정보: 유럽

유럽 농업·농촌·식품 동향

1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식량안보[1)]

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음.

- 전 세계적으로 식품 공급 시스템을 기후변화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번 침략이 발생함.
-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한 농산물 수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열량의 12%가 두 국가에서 생산됨.
- 또한,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비료 수출국으로 농업 생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임.
- 중동, 북아프리카,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72%, 우크라이나에서 18%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어 현재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였음.

|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|

상품	우크라이나	러시아	합계
밀	10%	24%	34%
옥수수	15%	2%	17%
보리	13%	14%	27%
해바라기유	31%	24%	55%
해바라기 깻묵(cake)	61%	20%	81%
식물성 기름	-	-	10%
전 세계에서 무역 거래가 되는 식품 열량에서 차지하는 비중	6%	5.8%	11.8%

■ 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식량 공급의 부족, 식량 가격의 상승 등을 발생시킬 것이며, 국가별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,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, 다른 국가들의 수출 상황에 따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음.

1)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"Russia's war on Ukraine: Impact on food security and EU responses"(2022.4.11.)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(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thinktank/en/home).

국제 농업 정보: 유럽

-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는 2022-2023에 전 세계적으로 2,500만 톤의 밀이 다른 국가에서 대체되어 생산되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음.
- 농식품 가격은 전쟁 전에도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생산량 부족과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.
- 이집트, 아르헨티나, 인도네시아, 세르비아, 터키, 헝가리 등은 이미 그들의 주요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실시함.

■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이미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자급자족이 가능한 공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나 해바라기씨유 등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, 농산물 생산과 저소득층의 식량안보에는 위협이 될 수 있음.

- 유럽연합에서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에너지, 사료 및 사료 첨가물, 비료 등의 수입 위험도가 상승함.
-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은 식품 접근성이 낮아졌으며, 최근의 사태로 인해 더욱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.

■ 유럽연합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즉각적인 대응책을 실시함.

- 5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제공, 특정 상품(예: 돼지고기) 시장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며, 2022년 후반기에는 직불금(direct payments)을 제공하고자 함.
- 추가적인 농지를 생산에 투입하고, 유럽연합의 단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 제한 조치를 피하며, 공동농업정책 예산 투입을 통해 에너지, 연료, 비료, 제초제 등에 대한 수입 의존성을 낮추는 투자를 실시함.
- 우크라이나에 3억 3,000만 유로 규모의 위기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2.04.25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2 유럽연합의 미래와 농업·농촌(Panel 1)[2)]

■ 유럽연합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수렴하여 유럽연합의 미래를 구상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, 제안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밝힘.

- Panel 1[3)]에는 강한 경제, 사회정의, 일자리, 교육, 문화, 스포츠, 디지털 전환이 포함되었으며, 농업·농촌의 역할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짐.

2.1. 식품 라벨 개선

■ [제안] 식품 라벨을 개선하여 알레르기,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인증을 받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라벨링 시스템의 신뢰도와 정보 제공 능력을 개선해야 함.

■ [위원회 의견] '농장에서 식탁까지' 전략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소비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이고 주요 식품 생산자들에게 건강한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자 함. 최근에는 식품 앞면에 라벨을 부착(front-of-pack nutrition label)하도록 하고,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.

■ [진행 중인 정책] 식품 앞면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정책을 2022년 4분기부터 실행하고자 준비중이며, 환경, 품질, 와인 등에 대한 원산지 보호(지리적 표시제) 등을 위한 라벨 정책은 이미 시행중임.

2.2. 인터넷 접근성 취약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선

■ [제안] 인터넷 취약 지역(white zones/dead zones)에 인프라를 보급하도록 함. 또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환경(원격 근무용 사무실, 안정적인 인터넷 등)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함.

■ [위원회 의견] 농촌지역을 우선으로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, Cohesion Fund 등을 통해 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.

2)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"Stronger economy, social justice, jobs, education, culture, sport, digital transformation – Citizens' recommendations and the EU context: Panel 1 of the Conference on the Future of Europe"(2022.4.11.)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 (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thinktank/en/home).

3) Panel 2는 유럽연합의 민주주의, 가치, 권리, 법, 안보를, Panel 3은 기후변화, 환경, 건강, Panel 4는 세계 속 유럽, 이민을 포함함.

■ **[진행 중인 정책]** 2021년 3월에 발표한 '2030 Digital Compass: the European way for the Digital Decade'에서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모든 가구에 인터넷을 보급하고, 특히 농촌에는 '스마트 빌리지'를 만들어 농촌 공동체에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함.

2.3. 재래종 곤충 등 생물 다양성의 보존

■ **[제안]** 외래종의 침입을 방지하여 재래종 곤충을 보호하고 녹지를 형성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. 또한 회원국들이 재래종 나무와 꽃을 식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함.

■ **[위원회 의견]** 유럽연합은 도시, 생태계 시스템 등에서 생물다양성을 회복[4]하려고 하며, 녹색 인프라 확충 및 새로운 건물들에 녹색 건축 적용 등을 실천하고자 함. 또한 '2030 산림 전략'에서 조림과 그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었음.

■ **[진행 중인 정책]** 2014년에 유해한 외래종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법안을 발표하였으며, '농장에서 식탁까지' 전략에서 지속가능한 농약 사용[5]을 위한 제한을 두어 2030년까지 위험한 화학 제초제 등의 사용을 50% 감축하고자 함. 또한 새로운 유럽연합 산림 전략에서는 203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심고자 계획함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2.05.09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4) '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: Bringing nature back into our lives' 참조
5) '농장에서 식탁까지' 전략 중 'Action 4: revision of the Sustainable Use of Pesticides Directive for integrated pest management' 참조